

월요광장



노경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의 상승 바람을 타고 초고층 아파트들이 장벽처럼 위압적인 모습으로 시가지 이곳저곳에서 무질서하게 솟아올랐다. 이제는 시가지에서 무등산 보기가 쉽지 않고, 광주 도시경관은 획일적이며 단조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월 광주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약간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아파트 입주물량도 3분세대로 급격히 증가해서 광주의 기존 수급상황을 볼 때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시중에서는 “그 많은 고층 아파트에 누가 다 들어가 사나? 이제 그만 짓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의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중심 상업지역 내 주거용 시설 용적률 상향’을 담은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는 소식이다.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시설에 적용하는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사유로는 도심 공동화, 상가 장기 미분양, 상가 공실 등 해소를

상업지역 초고층 아파트 건설, 도심 활성화인가

들고 있다.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광주시의 인구 감소 추세,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상거래(배달)가 확대되는 소매 유통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고금리 여파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 심리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아파트를 더 짓게 하는 정책이 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초고층화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과 주택시장 침체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 개정이 특정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급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면 1000평의 부지에 용적률이 400%에서 540%로 상승되면 아파트 건축 연면적이 1400평 늘어난다. 분양가를 평당 2000만원으로 가정하면 공사비는 280억원이 늘어나고 수익률을 10%로 잡으면 순이익이 28억원이 증가한다. 부지가 3000평이면 순이익 84억원, 5000평이면 140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또한 용적률 140% 증가는 아파트 단지가 건폐율 20% 이하일 경우 건물 높이가 무려 7층 정도 더 높아진다. 따라서 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한다 하더라도 도시경관의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일이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다른 광역시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차이가 많았다. 상업지역에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을 규제하는 방식이 광역시간 상이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해서 비교한 결과이다. 대전(720%)이 가장 높

고, 부산·울산(594%), 대구(450%), 인천(440%), 광주(400%) 순으로 수치상으로는 광주의 규제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 인천, 대전에서 주거용 용적률이 높은 이유는 낮은 주택보급률 때문인 것 같다. 2023년 기준 대전의 주택보급률은 96.4%, 인천 99.1%, 부산 102.9%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광주는 105.5%이고 최근 상승 추세다. 또 향후 5년까지 대기하고 있는 공급 물량이 많아서 공급 조정국면으로 여겨진다.

광주시의회의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 검토를 위해 광주연구원에 올해 연구 과제로 제안했다고 한다. 아직 연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조례 개정부터 서두른 이유가 궁금하다. 2024년 말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의 이 조항에 대해 한 차례 완화 개정했다. 내용은 비주거용도의 최소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5%이었으나 이를 10%로 낮춰서 상가 공급을 줄였다. 개정이 있지만 자 바로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터 내 주상복합건물의 상업면적 축소가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되었다. 광주시가 완화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소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에는 시의회가 또 완화 개정을 의결하였다.

도시 전체에 대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면 ‘나홀로’, ‘첼빅’, ‘위압적’ 아파트 등 예측하지 못한 무질서한 개발이 발생해도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공간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규제 완화는 신중을 기해주시 바란다.

社說

내란·극우 세력 민주성지 모독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옹호 세력과 일부 극우 세력의 민주화 성지 광주 모독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주말인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보수단체 주최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45년 전 비상계엄에 항거한 광주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 그 자체였다.

기독교단체가 개최한 국가비상기동회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은 12·3 비상계엄을 촉발한 윤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하는 극우 세력들의 탄핵 반대 집회였다. 주최측 추산 1만명이라고 했는데 대다수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극우 세력으로 이들은 1980년 전두환의 비상계엄에 항거해 피를 뿌렸던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5·18 표지석을 밟거나 5·18를 폄훼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이들은 당초 옛 전남도청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하려다 광주시의 불허와 민주성지를 모욕한다는 여론에 밀려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광주시민들은 이들의 집회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는 만큼 민주성지를 모욕하는 행위 만큼은 자체해 주길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들이 보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금남로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주장을 한 것은 광주를 욕보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며칠 전에는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 중국 영정시 관계자 방문에 맞춰 광주시가 중국 국기를 게양한 것을 두고 극우 세력들이 색깔론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 국기 게양 사진과 영상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일을 못할 정도로 광주시청에 항의 전화를 쏟아냈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도를 넘는 행위를 보는 광주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민주성지를 모독하는 이들의 행태에 분노하기보다 평정심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

신입생 없는 전남 32개 초교...인구절벽 현실화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전남지역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올해 전남지역 초등학교 32곳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해 입학식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수는 1만108명으로, 2023년의 1만2881명, 지난해 1만1155명 보다 매년 1000명 이상씩 줄어든다. 특히 신입생을 단 1명도 받지 못한 학교(보고·보고 포함)도 32곳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보고 3곳과 분교장 4곳 등 모두 7개 학교도 가장 많았고, 보성군은 보고 4곳, 진도군은 보고와 분교장이 2곳씩이었다.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도 많았다. 전체 458개 초등학교 중 270곳으로 휴교 중인 13개 학교를 제외하면 61%에 이른다.

군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구례

군 10곳 중 8곳(80%), 고흥군 19곳 중 17곳(89%), 장흥군 14곳 중 12곳(86%), 강진군 13곳 중 12곳(92%), 진도군 14곳 중 12곳(86%), 신안군 21곳 중 20곳(95%) 등 80% 학교가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다.

사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86만여 명에 이르던 한 해 출생자는 2010년 47만여 명으로 3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문제는 전남지역이 학령인구 감소 영향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저출산과 더불어 취업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궁극적으로 대학 정원 미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근본적인 해법은 국가 차원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을 전남에 끌어들이는 교육 경쟁력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가운데 한 명이 운동주 시인이다. 그는 한국문학사에서 부끄러움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예민했던 문인이다. ‘서시’는 시대를 넘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애송하는 작품이다. 특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구절은 기도문과 같은 엄숙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운동주의 어릴 적 이름은 해환(海煥)이었다. “해처럼 빛나게 살라”는 뜻으로 부친이 그 같은 이름을 지었다. 순수하고 해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던 운동주는 유년시절부터 ‘어린이’ 잡지 등을 구독하며 시인의 꿈을 키웠다. 명동소학교, 광명중학교를 거쳐 서울의 연희전문(현 연세대)을 졸업한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릿쿄대와 도시사대에서 공부를 하지만 상상이 불온하다는 죄목으로 체포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를 당한다.

어제 16일은 운동주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80년이 되는 날이었다. 80주기와 맞물려 다채로운 추모행사가 국내 안팎에서 열리고 있다. 연세대는 시인의 삶

과 정신을 조명하는 추모식을 열었으며, 운동주문학사상선양회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고인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16일 일본 도시사대에서 열린 ‘운동주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이었다. 1875년 대학 설립 이후 도시사대가 죽은 이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재학 중 체포돼 숨진 윤 시인을 대학 측이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이라는 표현에서 사유의 단편이 읽히는데, 일본 내 양성적인 학자와 시인도 있다는 사실이 적잖이 반갑다.

이와 달리 일본 정부는 사투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균화도’ 관련 조선인 강제 노역은 여전히 은폐하고 있고, 사도광산 전시물에 적시해야 할 ‘강제’ 표현도 삭제된 상태다.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원했던 운동주 시는 사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에 대한 질타다. 올해는 운동주 80주기 외에도 광복 80주년,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다. 역사를 왜곡 은폐하는 일본 정부의 몰염치에 분노가 치민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나비 한 마리가 석류나무 가지 위에 높이 앉아 있다. 흰 바탕에 검은 띠를 두르고 양쪽 날개 끝에는 명주실처럼 긴 꼬리가 한 쌍 붙어 있다. 날개 아래부분의 붉은 무늬가 화려롭고, 화사하고 아름답다. 초록 잎사귀 사이로 석류꽃도 한 송이 고개를 내미는 중이다.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희게 번져있다.

나비는 가만히 있다. 나도 잠자코 나비를 바라보고 있다. 그 사이가 고요하다. 길고 가느다란 나비 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날개를 두어 번 팔랑거리더니 이윽고 훌쩍 날아오른다. 접었다 폈다 느릿느릿, 서서히 창공을 활강한다. 바람을 타는 듯, 햇살을 즐기는 듯, 전혀 서늘지 않는 기쁨 있고 우아한 몸짓이다. 유유히 글라이드 비행하다가 다시 석류나무 가지로 돌아와 앉는다.

아는 분이 자신이 기르는 나비라며 보내온 영상이다. 이들은 꼬리명주나비. 그는 꼬리명주나비를 불러 오기 위해 담장 아래 일부러 쥐방울덩굴 씨앗을 심어 두었다고 한다. 쥐방울덩굴이 꼬리명주나비의 먹이식물(食料)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집 마당에 훨훨 나비 나는 꿈을 꾸어본 것이다. 나비는 종류에 따라 애벌레

나비와 더불어 해찰을

가 먹는 먹이식물이 다른데, 꼬리명주나비와 사향제비나비는 쥐방울덩굴과 등짐, 호랑나비는 산초나무와 황벽나무, 암갈표범나비는 제비꽃, 네발나비는 환삼덩굴이 기주식물로 알려져 있다.

쥐방울덩굴의 싹이 트고 점점 무성해진 어느 날, 그 집 마당에도 정말로 꼬리명주나비가 날아들었다. 그곳에 쥐방울덩굴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즐기며 잎사귀 뒤에 수북하게 알을 낳고서 자신들의 거처로 삼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더 놀라운 건 꼬리명주나비의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거미, 기생벌, 잠자리, 잡새 등으로 이어지는 천적이 생겨나고, 아울러 그 집 마당은 그들의 ‘생태계’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쥐방울덩굴이 꼬리명주나비를 불러들이고, 꼬리명주나비의 포식자들이 차례로 나타나고, 또 상위의 포식자가 나타나면서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꼬리명주나비는 우화의 과정을 거치고서도 서식지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생김새도 예쁘고 나는 모습도 예쁘고 사랑스러워 애완 나비로 기르기도 좋다. 사향제비나비나 호랑나비, 암갈표범나비는 멀리까지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해서는 주변에 흡밀식물을 많이 심어 놓아야 한다. 흡밀식물은 나비가 좋아하는 꿀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종류가 다양하고 풍부하면 더 많은 나비를 불러올 수 있다.

알다시피 나비의 일생은 신비의 연속이다. 조그마한 점(알)에서부터 시작해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나비가 된다. 그 작은 점에서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고, 어떻게 번데기가 되고, 어떻게 것처럼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것도 채

두 달도 되지 않는 짧은 동안에 말이다. 하지만 인간의 시선이 그럴까 나비로서는 온전한 한 생이다. 나비의 한살이는 태어나고 살고 죽는 과정이 그 안에 응축되어 있거니와 모든 ‘살이’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반복해서 몇 번을 더 보았다. 땅 위에 있지 않고 지상 위를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의 날갯짓을 망연히 보고 또 보았다. 저 섬세하고 활연한 춤사위와 양중맞고 천진한 비행에 속 빨려들어 나도 한 마리 나비가 된 듯 싶었다. 장자가 나비 꿈을 꾸고서 자신이 나비인지 나비가 자신인지 모르겠다고 했듯이 나도 잠깐 나비 꿈을 꾸 수도 하다.

아, 그런데 왜 하필 나비 꿈이었을까. 호랑이나 사자 꿈이 아니고, 독수리나 송골매 같은 새 꿈도 아니고 왜 나비였을까. 장자의 꿈이라면 아무래도 나비 꿈이 제격인 걸까? 그럴 것이다. 나비는 인간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기간을 살다 가지만 누구도 나비만큼 완벽하게 생을 구가하며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비는 모두의 꿈이다. 장자에게도 나비는 꿈의 육화화도 같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었을까.

나비 꿈을 꾸고서 장자는 홀로 기꺼웠을 것이다. 아무도 그가 조금 전에 꾸 꿈을 알지 못하지만 모른다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니다. 북명의 물고기가 새가 되어 날아오르듯, 가장 크고 가장 황홀한 꿈을 나비로부터 꾸었을 것이다. 나풀거리는 나비의 날갯짓을 따라 바람결을 느끼고 햇살을 즐기며 더 높이 더 멀리까지 날아보고 왔을 것이다.

어느 고즈넉한 오후, 나비 한 마리와 더불어 해찰에 빠져 있다.

색(Color), 다름이 모여 완성되는 세상

변화가 있다.

채색된 그림에는 말처럼 보여지는 동물이 뛰어가는 모습 등이 있는데, 아마도 화가는 황색의 말을 보고 그린게 틀림없어 보인다. 변화는 단순히 말의 외관만 스케치 하지 않고 그 위에 색깔을 입혔던 것이다. 오늘날의 미술작품처럼 다양한 색상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색으로 조합한 훌륭한 작품으로 보인다. 라스코 동굴의 벽화는 그랬던 주인공은 구석시대의 화가 고حن가 아닐까 생각마저 든다.

주변을 잠시 둘러보자. 하늘을 보면 자연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연색 풍경이 보인다. 그리고 방안의 전장 등은 흰색이나 황색의 빛을 내뿜고 있다. 손바닥 안에 작달마 붙어 있는 스마트폰의 금속 재질 케이스는 어두운 색을 띠고, 디스플레이에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색이 뿜어져 나온다. 그런가 하면 유리, 유리컵 안의 물, 공기 등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지만 색깔이라는 것은 없어 보인다.

자연에서 발생한 빛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빛이건 간에 빛은 본래 빛 한가지 색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흑시 초등학교 시절 과학시간에 봤던, 프리즘(Prism)을 기억하는가. 단면이 정삼각형인 기둥 형태의 과학도구인데 보통 투명한 플라스틱이나 유리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선생님의 과학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했을 것이다.

실험은 간단했다. 프리즘을 앞에 두고 꼬마전구로 빛을 비추었고 그 반대편에는 투과된 빛을 좀 더 선명

하게 보기 위해 백지는 두었다. 프리즘에 빛을 비추자 비 갠 후이나 볼 수 있었던 무지개의 축소된 형태로 다양한 색이 눈앞에 펼쳐졌다. 분명 프리즘으로 들어간 빛은 황색 빛 하나였는데 말이다. 빛은 프리즘을 비추거나 비 갠 후에 무지개에서 보듯 빨주노초파남보 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빛은 실제로는 다양한 색의 집합임을 관측할 수 있었다. 파동인 빛은 파장이나 주파수에 따라 다양한 색을 연출하는 것이다. 즉, 빛은 다양한 알갱이를 띠고 있는 전자기파(electromagnetic radiation)라는 것이다.

이렇듯 세상에는 수많은 색이 존재한다. 단 하나의 색으로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림이 완성되기는 어렵다. 붉은 색의 강렬함, 푸른 색의 차분함, 노란 색의 따뜻함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조화로운 풍경이 탄생한다.

이는 마치 사회 속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과 역할을 가지고 어우러지는 모습과도 같다. 어떤 색은 강렬하고 어떤 색은 은은하지만 각각의 색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림이 완성되듯, 우리 사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 색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도 균형을 잡아나가는 사회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아름다워진다.

빛이 없으면 색이 보이지 않듯이, 소통과 이해가 없으면 사회도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우리가 색의 조화를 감상하며 아름다움을 느끼듯,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더욱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기 고



한근우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교수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며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중 하나는 색깔이다. 사물의 색은 모양과 성질 등을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보인 것이다. 흔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고유한 색을 지니고 있다. 색(色·color)이란 빛의 고유 주파수나 파장의 대역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다양한 색상을 일컫는 다.

그런데 사물을 보면 주변에서 비추는 빛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물론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들지만 말이다. 이런 현상은 주로 주변이 어둡거나 밝음의 조건에 따라 사물의 색이 다르게 보였을 것이다. 아마도 색은 빛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색과 색을 구분하는 것은 아마도 초기 인류 때부터 이미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남서쪽에는 라스코 동굴(lascaux caves)이라는 유적이 있다. 이곳은 기원전 1만7000년~1만5000년 경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인류가 지냈던 곳으로 동굴 안에는 색채가 가미된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